

일을 할 때에도 기본에 충실하라 GETTING BACK TO THE FUNDAMENTALS OF WORK

By Robert J. Tamasy

빈스 롬바르디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코치로 그린베이 패커스를 이끌면서 다섯 번의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훌륭한 지도력과 코칭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가 항상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이었다. 그것은 바로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시즌마다 첫 연습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면 롬바드리는 항상 손에 풋볼을 들고 "여러분, 이것은 풋볼입니다." 하고 말하곤 했다.

Vince Lombardi was a legendary coach in American professional football, leading the Green Bay Packers to five championships. He possessed great expertise as a coach, but one principle he always followed was to never forget the basics. Prior to the first practice of every new season, Lombardi would always raise an object in his hand and say, "Men, this is a football."

이미 선수들은 그것이 풋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풋볼 경기를 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바드리는 마치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수년간 연주 경력을 쌓았어도 여전히 건반에서 스케일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기본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His players knew what a football was. They had already spent many years participating in the sport. But Lombardi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never losing sight of the fundamentals, much as a virtuoso pianist continues to practice scales on the keyboard after many years of concert performances.

이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와 직업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기본,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때때로 되돌아보고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도 후반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성경 원리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In a similar way, for those of us who are called to serve Jesus Christ in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world, we too should pause from time to time to review and remind ourselves of "the basics" – the 'why' of what we do every day in the marketplace. As we enter the second half of the calendar year, here are some of the biblical principles that apply to all of us engaged in the marketplace: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대개 직장에서 상사나 관리자나 CEO 또는 회사 소유주를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성경은 마치 내 상사의 사무실 명패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로새서 3:23-24)

Whom we ultimately work for. We typically go to work hoping to please and impress our supervisor, manager, CEO, or owner of the company. But we're told to work as if the nameplate in the boss's office reads, 'Jesus Christ.'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Colossians 3:23-24).

업무의 퀄리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 정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작품은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그분의 일에는 탁월함이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도 마땅히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로새서 3:17)

Quality of our work. Consider the exquisite detail in which God has designed our world. The wonder and beauty of His work are beyond description. If the Lord demonstrates such excellence in His work, should we not strive to pursue the same excellence as His image-bearers?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esis 1:27).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일에 담긴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를 독특한 은사와 재능, 능력을 갖추도록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편 139:14)

Our purpose in work. In God's eternal plan for this world, He has designed each of us with unique gifts, talents and abilities. All are intended to bring Him honor and reflect His character.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Ephesians 2:10).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Psalm 139:14).

업무 수행을 위한 완전 무장. 교육과 훈련은 우리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끔 능력을 갖춰준다. 반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Fully equipped for our work. Education and training may prepare us to carry out specific job responsibilities, but our 'guidebook' for how we are to go about our work is God's Word, the Bible.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가. 어떤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었을 때 우리는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대표하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린도후서 5:20)

Who we truly represent. When hired by a company or an organization, we are expected to properly represent our employer. Ultimately, however,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to represent the Lord, communicating the saving, life-transforming message of the Gospel to anyone and everyone we encounter.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2 Corinthians 5:20).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준비를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돈을 벌어서 밀린 카드값을 지급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승진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인가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갈 거야"하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선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의견을 설명해 보세요.

When you got up this morning to get ready for work, why were you doing it? To earn money to pay the bills; work toward a promotion; engage in something you enjoy doing? Have you ever awakened with the idea, 'I am going to work for God'? Explain your answer.

2. 당신은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이 제대로 잘 다져져 있는지 점검해 보나요? 그 일이 업무이든, 조직의 사명이든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대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How often – if ever – do you review the basics, the fundamentals of what you are doing, whether it involves your working skills, your organization's mission, or what it requires to excel at a favorite pastime? What might be some benefits of doing that periodically?

3. 당신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중 한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Can you think of other principles from the Bible that you have found useful in your everyday work responsibilities? If so, discuss one or two of them.

4. 우리가 매일 일을 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자 '대표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whether we consciously approach our work each day from a perspective of being God's servants and representatives?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22:29: 전도서 2:24-25: 고린도전서 3:9: 에베소서 3:20, 4:12

Proverbs 22:29; Ecclesiastes 2:24-25; 1 Corinthians 3:9; Ephesians 3:20, 4:12

- (잠언 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 (전도서 2:24-25)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 (고린도전서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에베소서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에베소서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사람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삶과 일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세계관과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성경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Perceiving our lives and work from the teachings of the Bible is what many people term a "biblical worldview." Do you think your current worldview and approach to work reflect the principles from the Scriptures? If not, how might you try to change that? Or what areas do you think might need some improvement?

이번 주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멘토,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잠언 27:17 에 나오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는 성경적 원리가 어떻게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기 바랍니다.

This week, consider setting aside time to discuss this with a trusted friend, mentor, or small group of people, seeing in action the principle from Proverbs 27:17,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man sharpens another."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